

안전 보건

9

2025
SEPTEMBER

Vol. 433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가볍 하다

이달의
'안전' 우리말



작업 전후
스트레칭으로
가분하게

—

가분하다
'몸의 상태가 가볍고 상쾌하다'라는
뜻의 순우리말



<안전보건> 구독 신청

월간 <안전보건> 구독을 원하는 사업장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주세요.

9

2025
SEPTEMBER

Vol. 433



작업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작업지휘자 배치

안전 보건

9 2025
SEPTEMBER
Vol. 433

발행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인	김현중 이사장
편집위원장	안전문화홍보실 신수환 실장
외부위원	한국산업보건학회 김승원 편집이사 한국안전학회 옥승용 편집이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김광일 본부장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교육원 유정서 전임교수 기업홍보연구원 이주형 교육운영본부장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김동운 부장 김·장 법률사무소 김병규 전문위원 젠더심향상교육원 우명순 센터장 광운대 스마트시스템학과 권순철 교수 노동건강연대 박한솔 활동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직업건강협회 정미경 교육센터장 에코프로비엠 박승민 수석연구원 SK에코플랜트(주) 김동백 프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이영화 교수
내부위원	건설안전실 건설사업부 이일남 부장 교육혁신실 교육콘텐츠부 문석인 부장 산업보건실 보건계획부 이상근 부장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방수일 교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부 고인희 부장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방호장치인증부 김성익 부장 산업안전실 안전보건체계지원단 고인수 단장 안전문화홍보실 안전문화부 최원창 부장 안전보건평가실 민간기관평가부 권준혁 부장 외국안전담팀 박동연 팀장 전문기술실 화학사고예방부 류재민 부장 중소기업지원실 안전동행지원부 이종곤 부장 중앙사고조사단 과학사고조사부 표돈영 부장 ESG경영성과실 윤리경영부 이동훈 부장
담당	김정상 팀장, 강효진 과장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기획·디자인	필드가이드 02.6375.2665
인쇄	명일인쇄
홈페이지	www.kosha.or.kr

CONTENTS

Cover Story

“지게차 충돌은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다” 04

Workplace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 “안전도 우리가 1등!” 08

일터 이야기

(주)삼양사 전주공장 “사고 없는 내일을 위한 원칙” 14

사람 이야기

우중선 삼양식품(주) 생산지원부부장 “결국은 사람” 20

궁금한 일터

“막걸리 양조장 이야기” 24

Culture

Color : 색으로 산재를 잡자

울산교육청 “색으로 바뀐 울산 학교 풍경” 30

Note

“안전 행동 증진을 위한 고려사항” 34

People

“안전은 콩나물 기르기와 같다” 36

Episode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38

Knowledge

전문가 시선

‘공동안전관리자’가 만드는 안전한 일터 42

일터에서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

‘천공기 작업’ 재해 예방 44

‘크레인 작업’ 재해 예방 45

외국인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

‘감전’ 사고 예방 46

그림으로 보는 안전: 질식 재해 예방 47

산업재해 통계 및 사례

‘제조업’ 부딪힘 재해 48

‘운수·창고·통신업’ 부딪힘 재해 50

Information

중대재해처벌법

죽음의 동선, 부딪힘을 막아라 52

제철 음식 이야기

버섯, 가을의 맛과 향을 품다 54

국내·국제 소식 58

나에게 맞는 이달의 힐링 장소 59

COVER STORY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작업지휘자 배치



지게차 충돌은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다

글. 나중문 차장_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2024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지게차에 기인한 사고재해자는 1600명이다. 여러 발생 형태 중 ‘부딪힘’으로 인해 857명의 사고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0명이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다.”

산업현장의 효율성 상징, 지게차

기계와 장비가 인력 작업을 대체하고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시대이다. 대표적인 장비로 지게차가 있다. 이는 지게차 등록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24년 ‘건설기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게차는 21만8978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10년 전(등록 대수 15만6612대)보다 약 40%가 증가한 수치다.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 지게차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게차는 오늘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물류 장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업, 건설업, 물류창고 등 중량 물의 반복적인 이동이 요구되는 산업현장에서 지게차의 효율성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재해 통계가 말하는 지게차의 이면

화물과 물류 운반에서 중요한 장비인 지게차는 중대한 재해를 유발하는 고위험 장비이기도 하다. 2024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지게차에 기인한 사고재해자는 1600명이다. 여러 발생 형태 중 ‘부딪힘’으로 인해 857명의 사고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0명이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다. 산업현장에서 지게차가 무거운 화물을 싣고 이동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이면서 동시에 위험을 안고 움직인다는 사실이 통계 수치에서 확인된다. 부딪힘 재해의 주요 원인은 시야 확보 미흡, 혼재작업, 과속,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미배치 등이다. 지게차의 위험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매년 지게차로 인한 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인가?



“지게차 부딪힘 재해는 단순한 부주의 때문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며 인간 시각의 본질적 제약과 설비의 구조적 한계가 맞물려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게와 속도가 만들어내는 위험, 부딪힘

물체 형태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상호작용을 힘(force)이라 하며, 그 힘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속도의 변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지게차는 그 형태와 운전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1.5톤 이상의 중량을 가지며 화물 적재 시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수 톤에 달하는 지게차가 시속 10km 미만으로 주행 하더라도 주변 작업자가 지게차에 부딪히면 엄청난 크기의 힘이 전달된다. 지게차 부딪힘 재해가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유이다. 또한 지게차 부딪힘을 중대한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완벽하지 않은 시각 체계와 사각지대

시각은 우리가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주요 감각 중 하나이다. 이런 시각 체계는 중심 시력과 주변 시력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중심 시력은 보고자 하는 대상에 초점을 둘 때 사물의 색과 윤곽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좁은 범위의 시야, 주변 시력은 넓은 범위를 감지할 수 있지만 세부 식별은 어려운 시야 영역이다. 지게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마스트(mast), 포크 위 적재물, 좁은 운전석 등이 시야를 물리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운전석 전방에 세로 방향으로 위치한 마스트는 적재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야를 가려 보행자나 작업자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주 만든다. 이는 예상치 못한 위치에 있는 작업자와의 부딪힘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게차 부딪힘 재해는 단순한 부주의 때문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며 인간 시각의 본질적 제약과 설비의 구조적 한계가 맞물려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한계에 당장 오늘부터 즉시 대응이 가능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재해 예방 핵심 조력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게차 작업 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작업계획과 절차에 따른 지게차 작업 관리 및 위험구역 내 타 노동자 접근 통제, 지게차 운행 경로상 사각지대 확인 등이다. 특히 후진, 교차, 곡선 주행 구간 그리고 작업자와 혼재된 장소에서는 이들의 존재가 안전에 절대적이다. 지게차 작업에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의 존재는 단순한 보조를 넘어 재해 예방과 생명 보호의 필수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해, 지게차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알리고 주변 작업자의 접근을 실시간 통제하게 하면 지게차 부딪힘 재해 예방 효과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제한속도 지정과 제동거리 확보의 중요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미리 작업 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때 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그리고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톤 이하 지게차는 부하 상태로 시속 10km로 주행 시 2.5m의 제동거리 확보가 가능한 제동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동거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동작시키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의 주행거리로 해당 설비 운전속도, 노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각각의 규칙에서 제한속도와 제동거리 기준을 정하고 따르도록 규정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지게차로 인한 부딪힘 사고 등의 예방이다. 일을 서두르다 보면 의도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르친 일을 수습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과속 운전과 제동장치 사전 점검 생략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본능적 선택 회피 및 통제 조치

작업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게차 부딪힘 재해는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순간의 방심, ‘설마’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특히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과 지게차 운행경로가 맞닿아 있는 경우, 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이때 장비나 속도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의 본능과 이성 사이의 균형이다. 작업자들은 출입문이나 통로를 지날 때, 종종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하려는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안전 통로로 돌아가기보다는 바로 눈앞의 출입문으로 진입하려는 심리가 작동

한다. 반면, 지게차 운전자는 제한된 시야 속에서도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운행하려는 압박을 받는다. 이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작동하는 ‘본능적 선택’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는 부딪힘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게차 운행경로와 보행자의 이동 통로를 철저히 분리하고,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한 출입구에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다.

출입문에 비상등과 경고음을 연동한 시스템을 설치하면 지게차가 접근할 때 경보가 울려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의 본능적 판단에 경고 신호를 줌으로써 이성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

리더십과 시스템 조화로 완성되는 안전

지게차는 산업현장에 필수적인 장비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안전 위협을 동반한다. 시야 확보 어려움의 구조적 한계, 충돌 시 전달되는 막대한 에너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작업환경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기술적 장비와 인적 조치, 환경 개선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러한 위험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지게차 부딪힘은 단순한 실수보다 구조적 허점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예방 또한 구조적이어야 한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제동거리를 계산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익숙한 위험을 낯설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전을 지켜내는 시작점이며 지게차가 있는 모든 현장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 준수는 경영자의 강력한 관심과 리더십이 수반되어야 한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경영자가 먼저 현장에 나와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해야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경영자는 단지 보고받는 위치가 아니라 안전문화를 이끄는 최고 책임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정기적인 현장 점검 참여, 안전 예산 확보 및 지원, 소속 구성원의 역량 강화 등은 경영자의 의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적 접근과 경영자의 지원을 기반으로 지게차 부딪힘 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1등 타이어 안전도 우리가 1등!"

글. 홍난희
사진. 박현철
영상. 워크하드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 편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는 대한민국 타이어 제조업의 출발점이 된 기업이다. 선두 주자로서 혁신을 거듭해 국내 타이어 제조업에서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를 지키는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기술력과 경쟁력은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아 글로벌 톱10 타이어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명실상부한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이 대전공장이다. 1979년 당시 축구장 48개 크기(34만2000㎡)의 동양 최대 규모로 탄생한 이래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 생산과 기술 혁신을 이끌며 성장을 견인해왔다.

"불안전과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1위의 자부심으로 안전에서도 1등이 됩시다!"



"안전이 먼저다! 실적이 답이다! 명심할게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대전공장을 찾았을 때 마주한 현장은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실 틈 없이 돌아가는 공정 사이로, 짧은 틈을 내어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대전공장의 안전 구호인 “좋아, 좋아, 좋아!!”를 힘차게 외치며 하나로 뭉쳤다. 공장 안에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서로를 지키고,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이었다.



“안전한 현장이
한국타이어의 미래를
만듭니다!”

“안전한 드라이브,
우리가 책임집니다!”

이 페이지는 노동자, 사업주 등 일하는 사람들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이해와 존중으로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응원 공간이다.

사고는 미리 막고 안전은 끝까지 지킨다 재해 ZERO를 향한 약속



타이어는 자동차 부품 중 유일하게 도로와 맞닿아 있다. 주행 성능은 물론 안전성과 승차감까지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장마철 빗길이든 겨울철 눈길이든 한결같이 굴러야 하고, 수십 톤 대형 트럭의 무게도 견뎌내야 한다. 자동차의 수많은 구성품 중 가장 고된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타이어(tire)의 어원이 ‘타이어드(tired)’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다. 타이어는 수많은 부품 중 거의 유일하게 외부로 브랜드가 노출된다. 일반 소비자에게도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곧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타이어를 선택할 때 성능과 기술력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내 최초의 타이어 기업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는 이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갖췄다. 특히 대전공장은 회사 전체 타이어 생산량의 약 10~15%를 담당하는 핵심 생산기지다.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2000명의 노동자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하루 3만~3만2000개의 타이어를 생산한다. 연간 생산량이 약 1100만개에 이른다. 주요 생산 품목은 승용차(PCR), 초고성능(UHP), 경트럭(LTR) 타이어이며 국내외 시장에 공급한다.

글. 홍난희 사진. 박현철

“타이어 생산 과정에도 부딪힘, 끼임, 베임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전공장은 “모든 사고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선제적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안전관리 핵심은 ‘선제적 대응’

겉보기에 타이어는 매우 단순하다. 둥근 형태의 검은 고무 덩어리. 그러나 타이어는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측은 정련-압출-재단-성형-가류-검사-출하의 7단계 공정을 거쳐야 하나의 타이어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정련은 타이어 각 부위에 적합한 고무 소재를 만드는 공정이다.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에 카본블랙, 가황제 등 첨가제를 배합해 용도에 맞는 고무 콤파운드를 제조한다. 타이어의 내열성, 내마모성 등을 좌우하는 고무의 품질이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

이어 압출기를 통해 고무를 일정한 두께와 형태로 만들고, 이를 길이와 너비를 맞춰 재단한다. 성형 공정에서는 재단된 고무와 부속품을 조립해 타이어의 원형을 만든다. 이후 가류 공정에서 열과 압력을 가해 고무를 화학적으로 경화시키는데, 이때 탄력성과 내구성 등이 생기고 최종적인 타이어가 완성된다. 이어 각종 검사를 통과한 타이어가 시장으로 나간다.

여느 제조업 공장과 마찬가지로, 타이어 생산 과정에도 부딪힘, 끼임, 베임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전공장은 “모든 사고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선제적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시인성·편의성 높은 LOTO...준수를 끌어올려

대전공장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서 특히 자랑하는 것은 LOTO(Lock Out Tag Out) 시스템이다. 설비를 점검·수리할 때 예기치 않은 가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절차다. 작업 전에 해당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를 통해 다시 작동하지 않게 고정한다. 여기에 식별 가능한 태그(Tag)를 부착해 설비가 잠금 상태임을 모든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초기에는 LOTO 시스템의 준수율이 낮았다.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례가 잇따른 것이다.

이에 회사는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개선에 나섰다. 설비에 부착하던 기존의 'Tag Out'을 커버가 달린 블라인드 형식으로 바꿨다. 이는 작업자들이 설비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직관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냈다. 커버를 여닫는 것만으로 조작할 수 있어 편리성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LOTO 시스템 교육 동영상도 제작했다. 회사는 해당 영상을 식당·휴게실·회의실 등에서 상시 송출해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작은 변화는 큰 효과를 불러왔다.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사라지자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의지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그 결과 LOTO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고, 누구나 LOTO 절차를 준수하게 됐다. 실제 설비 안전사고 발생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게차 사고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회사 측은 "지게차 사고는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장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지게차의 속도를 시속 8~10km로 제한했다. 주요 운행 구간에는 지게차 전용 안전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충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경고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게차의 안전장치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안전 사이렌 경보'도 예방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사업장의 누적 재해 발생이 '위험 단계'로 판단될 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활동이다. 경보가 발령된 팀은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팀원들을 인터뷰하고,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재진단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잠재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사업장끼리 '교차 점검'...객관적으로 위험 발굴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건 SHE(Safety, Health, Environment) 전담 조직이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는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해당 조직을 대폭 보강했다.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더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회사는 전담 조직을 통해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각 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해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SHE 조직의 활동 가운데 회사가 자랑하는 것은 '교차 점검'이다. 각 사업장에 배치된 전담 인력들이 다른 사업장을 상호 점검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현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위험 요소를 발굴해서 자칫 놓칠 수 있었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타 사업장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사업장 간 협업과 정보 공유가 회사 전체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라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에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는 개개인의 안전의식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5대 골든룰'을 제정해 모든 작업자가 준수해야 할 핵심 수칙으로 삼았다. 이를 위반하면 실질적인 징계가 뒤따를 정도로 회사는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잠깐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회사 측은 이런 원칙이 현장에 뿌리내릴 때 진정한 안전문화가 형성된다고 믿고 있다.

보상도 병행한다. 성과를 인정하는 다양한 포상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매년 무재해를 달성한 부서를 선정해 시상하고, 탁월한 안전 활동을 수행한 관리감독자를 연 2회 포상한다. 이는 탄탄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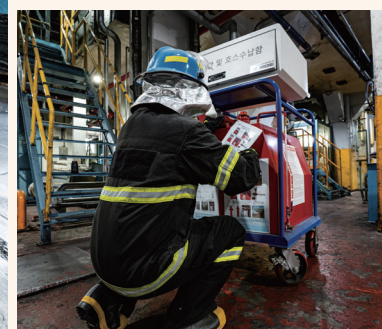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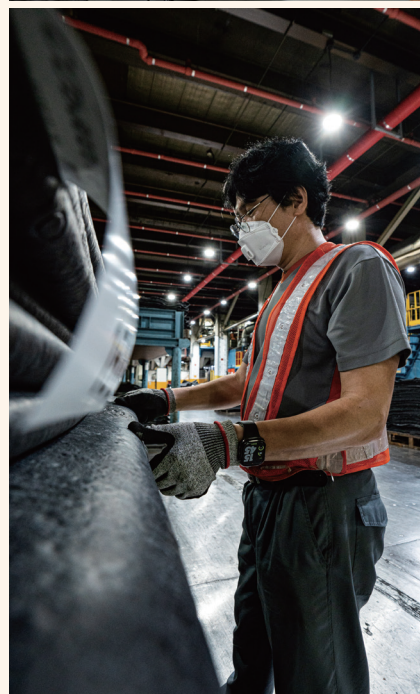
또 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공모전 등 이벤트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벤트를 통해 도출된 뛰어난 아이디어는 실제 현장에 적용돼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안전은 가족 행복과 직결되는 최고의 가치”



올해 초 대전공장에선 안전보건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장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관계자,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여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준길 공장장은 “결의대회에서 외친 약속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설비 안전성 확보, 위험 요인 개선 활동 등 구체적 실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구성원들에게 안전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늘 강조한다”며 “대전공장의 모든 구성원이 이를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실천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플라스틱의 발명은 인류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고, 석기-청동기-철기 시대를 지나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볍고 단단하며 가공이 쉬운 플라스틱은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거의 모든 물건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 발전과 함께 플라스틱은 고도화된 첨단 소재로 진화했다. 그중에서도 가벼우면서 금속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강도와 탄성이 뛰어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Engineering Plastic, EP)'은 전기·전자·기계 산업 등의 필수 소재로 자리 잡았다. 특히 EP의 수요는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EP는 금속 부품을 대체해 차량 무게를 줄이고, 주행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삼양사 전주공장은 이러한 EP 생산을 전담하는 주요 거점이다. 1987년 공장 설립 이후, 회사의 주력인 화학사업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글로벌 첨단 소재 기업으로 성장한 삼양사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생산 기반이기도 하다. 현재 전주공장에선 삼양사 소속 57명, 협력업체 소속 75명의 노동자가 PC, PBT, PMMA, PET 등을 베이스로 한 각종 콤파운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글. 홍난희 사진. 박현철

한 번 더 확인! 점검! 개선!

사고 없는 내일을 위한 원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예방 중심' 안전체계 구축

삼양사는 안전에 있어서 '준비된 기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진행했다. 법 시행 1년 전부터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비했다.

또 전담 조직은 반기마다 안전보건업무 수행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전사에 공유하고 있다.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시키고 동기를 부여해 모든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고르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전주공장도 이러한 전사적인 노력에 발을 맞췄다. 특히 기계적·화학적 위험이 상존하는 생산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를 구축했다.

EP 생산 공정엔 고온압출기, 사출성형기 등의 기계가 사용된다. 지게차 사용도 빈번하다. 이로 인한 끼임, 부딪힘 등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이 잦은 만큼 화재나 폭발 위험도 내재돼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공장은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동시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공정안전관리(PSM)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주요 설비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에는 방폭형 CCTV를 설치해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고, 가스누출 감지기 등 탐지설비를 갖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는 물질의 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한다. 작업자의 몸에 화학물질이 묻으면 즉시 씻어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사위설비도 설치했다. 전주공장은 이처럼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현장에 정착시켰다.



ESH 통합 시스템으로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전주공장은 또 삼양그룹 차원에서 구축한 ESH(Environment, Safety & Health) 통합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공유하며, 법정 점검 이행 현황과 사고 사례, 직무교육 이수 여부, 적격 수급업체 평가, 환경설비 관리 등 다양한 항목을 데이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주공장은 ESH 평가제도도 적극 시행 중이다. 이 평가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목록화하고, 이행 여부를 안전관리자가 점검한 뒤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평가 항목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여부와 환경관리 상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장 노동자의 참여다. 유해·위험 요인을 노동자 스스로 발굴하고, 작업 위험성평가를 직접 수행한 뒤 관리감독자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반영한 안전관리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 결과는 매월 지표회의를 통해 공장장에게 보고되고, 각 파트 관리감독자의 KPI(핵심성과지표)에도 반영된다. 또한 우수 평가를 받은 관리감독자를 매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관리감독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 리더십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공장 측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1차적인 안전관리는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와 노동자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 내렸다고 자평했다. 특히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로 전환되면서 무사고 사업장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공유하며, 법정 점검 이행 현황과 사고 사례, 직무교육 이수 여부, 적격 수급업체 평가, 환경설비 관리 등 다양한 항목을 데이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노사가 함께하는 상호 협력의 안전점검

삼양사 전주공장은 현장과의 소통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적으로는 분기마다 하면 되는 합동점검을 매월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직원 의견을 반영하는 ‘안전 제안제도’도 적극 운영 중이다. 전주공장은 이를 통해 매년 특정 시기를 ‘안전 특별제안 기간’으로 지정해 노동자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안전관리 대책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서별 TBM 활동, 현장 협의체 회의, 정기 안전교육 등 지속 가능한 소통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사측과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안전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노사 특별 안전점검’으로, 계절별 이슈(호우, 태풍, 혹서 등)나 추락, 끼임, 화재, 연휴 대비와 같은 특정 주제를 설정해 실시하는 테마형 점검이다. 시의성과 집중도를 높인 활동으로 위험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크다.

“단순한 지시와 보고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안전 활동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상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자율적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구조를 실천하고 있다.”

또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환경안전점검’이 이뤄진다. 공장장, 노조위원장, 협력사, 관리감독자 등이 참여해 안전 방호장치 이상 여부,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상태, 정리정돈 실태, 불합리한 작업 환경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더불어 현장 작업자 인터뷰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공장 측은 “단순한 지시와 보고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안전 활동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상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자율적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구조를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력업체는 ‘안전 동반자’...아낌없이 지원

협력업체 직원들도 전주공장의 매우 중요한 ‘안전 동반자’다. 전주공장에는 삼양사 직원 수보다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면, 결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전주공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힘쓰고 있다. 협력업체에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교육 장소도 지원한다.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인 협력업체를 위해 작업 전 TBM 활동과 위험성평가 인증도 돕는다. 또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위험성평가와 개선 활동에 기술적 지원과 피드백도 아끼지 않는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과 휴게실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도급업체 대표자 안전회의를 통해 협력업체의 안전의식도 끌어올리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지난해 협력업체와 공유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하기도 했다. 여기엔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14개 항목의 예방대책이 담겼다. 영상은 현장 출입구에 상시 노출하고 있으며, 영문 버전으로도 제작해 해외 사업장에도 공유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전사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전주공장의 이러한 노력들은 최근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전주공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안전보건 파트 장덕수 매니저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표창을 받은 것이다. 장덕수 매니저는 “개인이 받은 상이지만, 혼자서는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공장 출구에는 ‘나는 오늘도 안녕하였는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이 질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개인의 목표이자, 우리 공장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인간 존중’ 경영이념으로 무사고 사업장 실현

지난달 전주공장은 연례행사인 안전보건결의대회를 열었다.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팀워크를 다지고 안전결의문을 채택하며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 안전 우수사원 포상과 안전퀴즈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된 현장은 그야말로 ‘안전의 대축제’였다.

이 자리에서 배용준 공장장은 “매 순간 경각심을 갖고 기본에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이는 매월 열리는 안전회의와 월례 조희 때마다 그가 거듭 강조하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이에 직원들은 힘찬 구호로 화답했다. “한 번 더 확인! 한 번 더 점검! 한 번 더 개선!”

꼼꼼한 확인과 점검,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약속이 담긴 구호다.

삼양사의 경영이념은 ‘인간 존중’이다. ‘인간 존중’의 필수 요소인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공장 역시 이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는 데 필수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배용준 공장장은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고도화된 최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장답게 더욱 고도화된 안전관리체계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삼양사의 경영이념은 ‘인간 존중’이다.

‘인간 존중’의 필수 요소인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은 사람'에서 시작된 안전문화 혁신,



실천과 소통이 만들어낸 안전일터

●
삼양식품(주)
우종선 생산지원부문장



불닭 브랜드로 K푸드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삼양식품(주)의 우종선 생산지원부문장은 독창적인 제조현장 종합관리 시스템인 CS(Comfort & Safety) 활동을 통해 '현장 위생, 위험 제거, 정리정돈'을 정착시키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왔다. '안전관리는 규정 준수를 넘어 일상에 뿌리내려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전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삼양식품만의 독창적 제조현장 종합관리 시스템인 CS 활동을 통해 ‘현장 위생’ ‘위험 제거’ ‘정리정돈’ 3원칙 준수 여부 점검을 정례화하고 안전환경팀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했다.”

안전은 조직에서 태어나고 실천으로 완성된다

“‘안전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뭘까’가 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작업자들의 불안정한 행동, 불안정한 기계·설비, 불충분한 안전 교육, 형식에 그치는 위험성평가... 이 모든 걸 해결하려면 주먹구구식 안전관리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관리팀장을 맡았던 우종선 부문장은 관리부서 직원이 안전업무를 겸직하는 상태로는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2017년 체계적인 안전관리 경영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관리팀에 속해 있던 안전관리 조직을 ‘안전환경팀’으로 분리하고, 인력을 크게 늘렸다. 기존에는 2명이 겸직했는데, 16명이 전담하도록 했다. 관리감독자도 8명에서 52명으로 확대했다.

우 부문장은 삼양식품만의 독창적 제조현장 종합관리 시스템인 CS 활동을 통해 ‘현장 위생’ ‘위험 제거’ ‘정리정돈’ 3원칙 준수 여부 점검을 정례화하고 안전환경팀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했다. 주야간 안전 패트롤을 운영하며 위험 기계, 미끄러운 바닥, 화학물질 노출, 고온 환경 등 사업장 곳곳에 상존하던 불안정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특히 ‘끼임재해 근절 TF’ 운영은 안전사고 저감에 큰 역할을 했다. 식품 제조현장에서 널리 사용하는 혼합기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계가 정지해도 임펠러가 회전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회전 정지 타이밍에 맞춰 덮개가 열리는 타이머 록·안전망·시건장치 등 3중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TF 운영을 통해 115건의 유해·위험 요인을, 정기 위험성평가를 통해 3년간 총 1170건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했다.

‘모든 노동자가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만들기’를 모토로 삼은 우 부문장은 특히 신입사원을 주목했다. 안전 규정이 몸에 배지 않은 데다 기계 작동에 미숙한 탓에 갓 입사했을 때 산재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끼임 위험, 작업안전표준, LOTI)을 실시하고 명찰, 모자 색상으로 구분해 안전 패트롤이 신입사원의 불안정한 행동을 발견하는 즉시 코칭을 하도록 했다.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

“예전에는 ‘빨리빨리’가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고, 1초라도 늦어지면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관리는 사고를 줄이고 작업 중단을 최소화해 오히려 생산성을 높입니다. 안전에 대한 비용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우 부문장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인을 꼼꼼히 찾아내 개선했다.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지점에 덮개를 설치하고, 입구와 출구 사이 개구부와 포장기 위험 지점 간 거리가 너무 가까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구와 출구를 터널형 구조로 바꾸어 손이 위험지점에 닿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누출감지 문자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고, 80데시벨 이상(법적 기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에는 귀마개 착용을 의무화했다. 손목·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한 보호대 지급, 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스트레칭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하고 있다.

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안전교육과 모니터링을 하고, 매주 월요일을 ‘안전보건교육의 날’로 지정해 시청각교육을 포함한 집체교육을 한다. 안전환경팀 직원들은 ‘삼양 파수꾼’으로서 안전수칙 위반 시 고지서를 발부하고, 산재 예방 정보를 담은 월간 ‘안전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안전환경팀 직원들은 ‘삼양 파수꾼’으로서 안전수칙 위반 시 고지서를 발부하고, 산재 예방 정보를 담은 월간 ‘안전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똑똑하게 제안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안전문화

“사고는 작은 위험신호를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작업 중 느끼는 이상하거나 불편한 점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상하면 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편견 없이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을 만들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신이 발굴한 위험 요인을 손쉽게 보고하고, 개선안도 건의하는 ‘안전제안제도’, 부서별 연간 안전활동 실적을 점수화해 포상하는 ‘자율안전활동평가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우 부문장은 협력사의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2022년 9개 협력사와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A등급을 받았다. 2023년에는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들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지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도왔다. 안전보건공단의 ‘식품제조업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제작 시 라면 제조 분야 안전관리 사례 제공 및 현장조사, 탐방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자사 제품인 별뿔빼이 멀티팩에 ‘별뿔빼이와 함께하는 안전한 하루’라는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 대상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우 부문장은 2025년에는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율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안전작업표준 미준수, 기계·기구의 오조작, 안전장치 임의 해제, 불안정한 작업자세 및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행동중심 교정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유공자 선정은 안전을 위해 응축된 땀방울을 흘려 준 안전환경팀원들과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산재 예방은 경중이나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먼저’라는 책임의식과 ‘우리 함께’라는 연대의식을 몸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신념이 인정받은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산재 예방은 경중이나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먼저’라는 책임의식과 ‘우리 함께’라는 연대의식을 몸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신념이 인정받은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회사 슬로건

안전관리는 일상이자 책임

삼양식품(주)의 산재 예방 따라잡기

- ‘끼임재해 근절 TF’ 운영으로 유해·위험 요인 115건 개선
-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 문자알림 시스템’ 등 위험감지체계 강화
- 연 2회 위험성평가로 3년간 유해·위험 요인 1170건 개선
- 스마트폰으로 위험 요인 제언·포상하는 ‘안전제안제도’ 운영



백년 가까이 이어온 전통,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빛어내다

세대를 넘어 우리 술의 맛과
정신을 알리는 막걸리 양조장

글. 김정덕 사진. 박민석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강화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다. 굽이진 해안선과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켜켜이 쌓인 이야기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유구한 역사를 품은 강화도 한편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키며 묵묵히 명주를 빛어내는 곳이 있다.



약백 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통 양조장

강화도 길상면 온수리, 고즈넉한 마을 어귀에 다다르면 낡았으나 굳건히 서 있는 한 목조건물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곳이 백 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금풍양조장이다. 193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근대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인천시 등록 문화유산 6호로 등록되기도 했다. 붉은 벽돌과 오래된 나무 기둥이 어우러진 외관은 지나온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안정감과 깊이를 품고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금풍양조장의 진정한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1층에는 생산 및 실험실, 양조 체험실, 판매실이 있다. 생산 및 실험실은 현대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 눈길을 끄는 건 양조장의 오랜 역사를 대변해 주는 90년이 넘는 우물이다. 지금은 이 우물 대신 지하수를 사용한다. 체험실은 방문객들이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 보는 곳으로, 과거 입국법에 특정 공방미를 배양시켜 만든 누룩의 일종을 보관하고 밀가루를 쪄내는 공간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 과거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겨운 단단한 나무 바닥과 손때 묻은 짙은 색의 기둥이 오랜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다. 곳곳에 놓인 거대한 옹기 항아리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소품들은 이곳이 양조 역사를 품은 박물관임을 실감하게 한다. 과거 실제로 사용하던 술병들, 당시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 빛바랜 다양한 인쇄물들이 금풍양조장의 발자취를 증언하고 있다. 예전에 쪄낸 밀가루를 건조했던 이곳에는 당시 작업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장치도 있다. 공간 중앙에 넓게 뚫린 사각형의 통로다. 이곳을 통해 건조된 밀가루를 아래 작업장으로 손쉽게 내려보내 작업 효율을 높인 것이다. 이외에도 투박하나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게 곳곳에 있다.



전통의 가치에 프리미엄을 더하다

현재 금풍양조장을 운영하는 양태석 대표는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금풍양조장이 양 대표의 가업이 된 것은 1969년부터이다. 고(故) 김학제 대표가 1931년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설립한 이곳을 양 대표의 조부(양환탁씨)가 인수하면서다. 그 뒤를 이어 양 대표의 부친(양재형씨)이 약 50년간 운영했다. 전통주 양조장으로 승승장구하던 금풍양조장에도 위기가 있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막걸리 산업이 쇠퇴하고 소주와 맥주 등 경쟁 주종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이 닦쳤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금풍양조장의 부활을 이끈 주인공은 바로 양태석 대표다.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며 음식과 요리에도 흥미가 많았던 그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조장 경영에 뛰어들었다. 그전까지 오랫동안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해 온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더했다. 전통주 생산과 더불어 금풍양조장을 현대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신시킨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고급화 전략에 어울리는 프리미엄 막걸리 개발에 주력하면서 공간을 이용해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갔다. 최근에는 우리 전통주를 세계 시장에 알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미술랑 레스토랑 아키라백과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는데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과 접촉 중이죠. 술이 음식의 한 종류이다 보니 유통 과정에 제약이 많아 까다로우나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쌀과 물, 누룩을 시간과 정성으로 빚는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잡은 금풍양조장 막걸리의 비법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양 대표는 강화도에서 재배된 친환경 무농약 쌀로만 술을 만든다. 쌀의 품질이 막걸리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청정 강화의 쌀만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 보호와 지역 상생이라는 윤리적 소비 가치를 추구한다. 전통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술의 또 다른 중요한 재료인 물은 양조장이 위치한 길상면 온수리의 지하수를 정수해 사용한다. 예로부터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 해서 ‘온수리(溫水里)’라 명명된 이 일대의 지하수는 과거 ‘약수천(藥水川)’이라 불릴 정도로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빚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입국은 안타깝게도 전통 방식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단절된 상태다.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외부의 누룩을 들여와 사용한다.

“몇 년 전부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사용하셨던 양조균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은 금풍양조장이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 이때 복원된 균을 사용해 당시 만들었던 약주를 다시 선보일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잡은
금풍양조장 막걸리의 비법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금풍양조장의 막걸리는 전통적인 이양주(二釀酒) 방식으로 빚는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밑술 만들기다. 씻은 쌀을 충분히 불린 뒤 밥알이 뭉치지 않는 고슬고슬한 고두밥을 짓는다. 충분히 식힌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섞고 손으로 정성껏 치대어 재료가 고루 섞이도록 한다. 이렇게 준비된 밑술은 발효시킨다.

발효 초기에 술덧을 자주 저어 산소를 공급하고 온도를 23~28도로 유지하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밑술이 어느 정도 익은 뒤에는 고두밥과 물을 추가하는 덧술 과정을 거친다. 이 같은 이양주 방식은 전통적인 다단계 발효 방식으로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동시에 깊고 복합적인 풍미를 부여한다. 덧술 단계에서도 매일 여러 번 술덧을 저어주는 교반 작업이 중요하다. 재료가 균일하게 섞이고 발효열이 고루 분산되어 미생물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다. 이러한 수작업은 전통주 제조에 ‘손맛’과 ‘정성’이 핵심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다음은 발효가 끝난 걸쭉한 술덧을 여과해 막걸리 원액을 얻는다. 막걸리는 명칭이 ‘막 걸렀다’에서 유래한 것처럼, 술지게미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탁하게 만든다. 걸러낸 막걸리는 저온 장기 숙성에 들어간다. 과거에는 옹기에 넣어 땅에 묻었는데 옹기의 미세한 숨구멍이 공기를 순환시켜 균일한 발효를 도왔다. 저온에서 오래 숙성하면 잔당이 적어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 넘김을 자랑하는 고품질의 막걸리가 탄생한다. 일반적인 막걸리는 완성까지 2주 정도 걸리고, 프리미엄 막걸리는 저온 숙성하는 데만 한 달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탄산감이 없는 것이 특징인 금풍 막걸리는 쌀과 물, 누룩 이외 어떤 감미료도 넣지 않는다. 오직 이런 재료만 고집하는 이유는 선조들이 정성으로 만들었던 막걸리 맛을 계승하기 위해서다. 이는 양 대표의 양조 철학이다.

술을 만들 때는 맛뿐만 아니라 위생과 안전 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전통 양조장은 발효 과정의 특성과 높은 수작업 비중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의 활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한다. 이때 발효 용기를 완전히 밀폐하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 용기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적절한 가스 배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양조장 작업 환경도 신경써야 한다. 밥을 찌는 증자 과정에서는 고온의 증기가 발생하므로 화상에 주의하고 환기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 특성상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시설을 잘 관리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필수다. 모든 기구와 작업 공간은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이러한 위생 및 안전수칙들은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소비자들 믿고 마실 수 있는 막걸리를 제조하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양 대표의 설명이다.



양조 체험과 이벤트로 전하는 전통의 가치

양 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 방식의 막걸리 재현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양조장이 술을 만드는 곳을 넘어 방문객들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길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가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인기를 끄는 것은 체험 이벤트다.

참가자들은 막걸리의 역사와 제조법에 대해 들은 뒤 밑술과 덧술을 만들고 누룩을 섞어 발효시키는 전 과정을 체험한다. 양조장에서는 직접 만든 막걸리를 가져가 짧은 숙성 기간을 거쳐 '나만의 막걸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경험은 체험자에게 전통주의 맛과 향을 온전히 이해하고 즐기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양조 체험 이벤트에는 막걸리가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임을 알리는 동시에 막걸리가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담금주 만들기, 양조장 역사투어, 소원카드 완성하기 등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전통술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양조장은 단지 술을 제조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문화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운영한 양조장을 새롭게 만들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통이 깃든 오래된 공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술의 본질을 지키며 약 백 년의 시간을 이어온 전통 양조장이 진화를 거듭하며 또 다른 백 년을 준비 중이다. 청정 재료에 시간과 정성을 더한 우리 술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 줄지 기대된다.



“우리 술의 본질을 지키며 약 백 년의 시간을 이어온 전통 양조장이 진화를 거듭하며 또 다른 백 년을 준비 중이다.”



한국 전통주의 종류와 특징

우리 고유의 술, 전통주는 오랜 세월을 거쳐 지역과 계절, 사람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으로 빚어져 왔다. 쌀과 누룩, 물이라는 단순한 재료 속에서도 만드는 방식에 따라 술맛은 천차만별이다. 크게는 발효한 그대로 마시는 술, 한 번 더 발효시키거나 증류해 마시는 술, 여기에 향과 약재를 더한 술로 구분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은 발효다. 곡물에 누룩을 넣고 일정 시간 발효시켜 만드는 이 술은 거름 정도에 따라 다시 나뉜다. 걸리지 않는 ‘막걸리’는 걸쭉하고 뿌연 빛깔을 띠며,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반면 고운

체로 걸러낸 ‘청주’나 ‘약주’는 맑고 단정한 풍미로 제례나 상차림에 자주 오른다. 여기에 다시 누룩이나 술을 더해 한 번 더 발효시킨 ‘과하주’는 조선시대 여름철에 즐겨 마시던 고도주다. 이름 그대로 ‘여름을 나는 술’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저장성이 뛰어나고 맛이 깊다.

더 높은 도수의 술을 만드는 데에는 증류 방식이 쓰인다. 발효한 술을 끓이고,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면서 맺힌 증기를 모아 만든 ‘전통 소주’가 대표적이다. 안동 소주, 문배주, 이강주 같은 술들이 여기에 속하며, 도수는 보통 20~40도에 이른다. 풍미가 응축돼 있고 보관이 용이하다.

향과 맛을 더한 ‘혼성주’도 빠질 수 없다. 발효주나 증류주에 생강, 배, 계피, 정향 같은 향신료나 약재를 넣어 만든 술이다. 이강주는 생강과 배의 향이 살아있고, 감홍로는 붉은 색감과 더불어 진한 향이 특징이다. 일부는 약용주로도 쓰였다.

한국 전통주는 단순한 주류가 아니다. 발효와 정성,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이자 유산이다. 만드는 방식만 살펴봐도 술 한 잔에 담긴 시간의 깊이가 느껴진다. 지금 마시는 막걸리 한 잔에도, 고두밥을 찌고 술을 뜨던 조상의 손길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 좋은 술은 함께할 때 더욱 빛나고, 절제 속에서 깊이를 더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빨간색으로 살린 생명길, 노란색으로 만든 안전길"

"더 밝고, 더 안전하게... 색으로 바뀐 울산 학교 풍경"

울산교육청,

'산업안전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학교 현장 적용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올 여름방학에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학교 안전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산업안전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 매뉴얼을 울산 지역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 소화기 안전표지(화재 발생 시 소화기 위치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는 세 가지 디자인을 병행)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안전시설 개선을 넘어, 색채를 통한 안전 정보 전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색약자 등 다양한 색각을 가진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디자인 철학이 교육 현장에 처음 적용됐다는 의미가 크다.

글. 박정미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산업안전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을 울산 지역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 소화기 안전표지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

작은 변화, 큰 효과...급식실 손잡이 교체 사례

울산교육청의 색채 안전 디자인 적용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시작했다. 급식실 기구의 검은색 손잡이를 노란색으로 교체한 소규모 시범 사업이 그 출발점이었다. 안전총괄과 변종규 주무관은 "급식종사자들로부터 '시각적으로 더 잘 보여 부딪힘 사고 걱정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색채 디자인의 실효성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이 이번 대규모 소화기 안전표지 설치 사업의 계기가 됐다.



안전보건공단의 혁신적 CUD 기술

안전보건공단이 개발한 ‘산업안전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매뉴얼과 안전표지 디자인 제업)은 작업현장 내 안전 정보를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단은 비상구, 대피 유도, 소화기, 안전 보건표지, 지게차 주행로 등 사업장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개발했다.

특히 소화기 안전표지의 경우 국가표준인 ‘KS S ISO 7010’을 기반으로 하되,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위치를 신속히 인지하게 돕는 ‘소화기 방향’ ‘소화기 사용 방법’ ‘소화기 위치’ 세 가지 디자인을 병행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소화기 방향은 화살표를 추가해 쉽게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 소화기 사용 방법은 그림으로 사용법을 직관적으로 표기했으며, 소화기 위치는 어떤 장소에서도 눈에 띄도록 강조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 현장 맞춤형 안전 환경 구축

울산교육청이 이번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학교만의 특수성이 있다. 변 주무관은 “학교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수많은 학생이 교육받는 곳으로, 시각적 다양성을 고려한 안전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다중 시설인 학교의 중앙 현관, 급식실, 기숙사 등 출입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소화기 안전표지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대형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폭적 협력으로 일궈낸 성과

안전보건공단과 울산교육청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 구축으로 이어졌다. 변 주무관은 “그 동안 공단과 교육 지원 등에서 협력해왔지만, 이번에는 학교 현장에 색채 중심의 디자인 기법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변 주무관은 특히 “공단의 전문성과 교육청의 현장 경험이 결합돼 학교 현장에 맞는 실용적인 안전관리 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색채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화기 안전표지 도입 전

소화기 안전표지 도입 후



“최근 2년간 산업재해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시각적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색채 디자인 적용이 학교 현장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50개 학교 설치 완료, 점진적 확산 계획

현재 울산 지역 유치원 3곳, 초등학교 25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특수학교 2곳, 각종학교 1곳 등 총 50개 학교에 소화기 안전표지 설치가 완료됐다.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진행한 결과다. 이들 학교 교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8%가 안전표지가 눈에 잘 띄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나머지 200여 개 학교에 대해서도 예산과 필요성 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변 주무관은 “전체 설치 완료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효과가 입증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개선

초기 적용 과정에서 나온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도 향후 개선 방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눈에 잘 띄는 색상도 중요하지만, 학교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변 주무관은 “향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디자인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제공한 매뉴얼을 학교에 맞게 보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복도나 계단, 급식실, 과학실 등에도 다양한 색채 디자인을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향후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안전사고 감소 효과 기대

울산교육청의 현장 중심 안전관리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를 18% 감소시켰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

변 주무관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시각적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색채 디자인 적용이 학교 현장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변 주무관에 따르면 실제로 기존에 설치된 소화기는 위치나 사용 방법이 눈에 잘 띄지 않아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설치한 소화기 위치, 방향, 사용 방법에 색채를 적용한 안내표지는 시각적으로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는 디자인으로 직관적인 메시지를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평상시에도 위치 및 사용 방법을 반복적으로 인지하게 돼,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에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

울산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더욱 다양한 색채 안전 디자인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문턱 경고 표지, 바닥 안내 유도선, 계단 난간 등에 색채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 주무관은 “현장에서의 작은 목소리와 변화가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색채를 활용해 일상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번 울산교육청의 시도는 단순히 한 지역의 안전 개선 사례를 넘어, 전국 교육 현장에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색채를 통한 안전 정보 전달의 혁신이 우리 아이들의 더 안전한 학교생활로 이어지길 바란다.

'현장 안전 코칭 전

안전 행동 증진을 위한 고려사항'

글. 문광수 교수_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불안전 행동을 안전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작업 행동을 관찰하면서 교정적(corrective) 피드백과 안전 행동 제고를 위한 인정, 칭찬,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문화 증진에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안전 대화나 피드백 제공 전에 안전하게 작업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행동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인지 확인해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매우 많지만 주로 선발 측면, 교육 및 훈련 측면, 물리적 환경과 작업 재설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선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당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선 신체적 조건과 정신적 능력이 해당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성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성실성이 낮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거나, 저항성과 공격성 등이 높은 경우 불안정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발 과정에서 이를 파악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격이 업무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업무에 불만족하고 지루한 일로 생각하여 업무에 충분히 몰입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를 불완전 고용이라고 한다.

“노동자들에게 행동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인지 확인해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매우 많지만 주로 선발 측면, 교육 및 훈련 측면, 물리적 환경과 작업 재설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노동자를 선발할 때 안전 행동을 잘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 정신 능력, 성격, 자격 수준 등을 갖췄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1. 담당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2.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복잡한 경우 이를 다룰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가?
3. 조직의 규칙을 준수하고 주어진 업무를 책임감 있게 해내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는가?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은 자격을 갖춰서 지루해하거나 불만족할 가능성은 없는가?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는 우선 기대되는 안전 수행 수준과 현재 수행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들의 수행 수준이 기대보다 낮으면 관련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 다만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온전히 알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동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및 훈련 측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1.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2. 직원들의 현재 기술은 업무에 적절한가?
3. 직원들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4. 직원들이 업무를 얼마나 안전하게 수행하는가?

물리적 환경과 작업 재설계 측면은 기계나 설비 그리고 공정, 업무 순서 등의 변경 및 추가를 통해 직원들이 더 쉽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적 오류 (Human Error) 예방을 위해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업무의 경우 인지 부하(cognitive loading)를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물리적 환경과 작업 재설계 측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1. 공학적 개선으로 더 쉽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2. 신체적 부하를 줄이기 위해 업무를 재설계할 수 있는가?
3. 행동 구분, 기억 부하 감소, 일관성 유지를 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인가?
4. 복잡한 업무를 분배할 수 있는가?
5. 지루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순환해 수행하게 할 수 있는가?
6. 안전한 작업 수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가?
7. 장비는 충분히 안전한가?
8. 보호 장비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충분히 편안한가?



직원들은 더 편하고, 힘과 노력이 덜 들고, 긍정적인 결과가 더 많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작업 환경에 직원들이 맞추게 하기보다는 사람 중심, 즉 직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줄이는 조치들은 위험 제거, 대체, 공학적 통제, 관리적 통제,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이다. 관리적 통제나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보다는 위험 요인을 아예 작업 환경에서 제거하는 것, 위험한 물질이나 공정을 덜 위험한 것으로 바꾸는 것,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대체하기 어려울 때 기계적 장치나 설비를 사용하여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격리시키는 것이 더 근본적인 안전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위험 제거, 대체, 공학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이러한 조치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좋다.

“직원들은 더 편하고, 힘과 노력이 덜 들고, 긍정적인 결과가 더 많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작업 환경에 직원들이 맞추게 하기보다는 사람 중심, 즉 직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는 지적이 아닌 성장을 위한 조력”

“안전은 콩나물 기르기와 같아”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호남권평가센터 박시현 과장

글. 박정미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재해 예방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니 우수기관에는 더 발전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요.”

“평가자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가 되어야 해요.”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호남권평가센터 박시현 과장의 말이다. 입사 12년 차인 그는 현재 공공기관부터 1인 기업까지 안전보건 평가를 담당한다. 그는 평가를 ‘따뜻한 객관성’으로 접근한다. 엄정한 기준은 지키되 피평가기관과 함께 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조력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체크리스트와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는 박 과장에게 호남권 특성에 맞는 평가 노하우부터 미래 세대 안전문화 확산 계획, 현장에서 터득한 안전 철학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Q. 현재 맡고 있는 평가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호남권평가센터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재해 예방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전, 보건, 건설, 교육 분야 민간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의 자율 개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죠.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이 스스로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Q. 평가 업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나요?

“한 건설재해 예방기관 1인 대표님이 떠올라요. 기술지도 현장에서 만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준비한 음료와 간식을 주며 휴식을 제공하고, 스트레칭과 안전 구호 제창까지 함께하시더라고요. 단순한 평가 대응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 안전을 생각하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평가자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평가는 ‘지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조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를 ‘따뜻한 객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엄정한 기준은 지키되, 평가받는 기관의 노력과 상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거죠. 평가자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아니라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Q. 평가 업무는 피평가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재해 예방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니 우수기관에는 더 발전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요. 또 평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기관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의 서비스 품질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우수기관에는 평가 면제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다른 기관들이 서로 배우고 경쟁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죠. 이 모든 것이 산업재해 감소와 노동자 생명 보호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Q. 호남권의 지역적 특성이 평가에 영향을 주나요?

“전국에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지만 호남권만의 특성은 있어요.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고, 자동차부품, 조선, 농식품 가공업이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 특성에 맞는 재해 유형과 안전관리 포인트를 특별히 강조하고, 평가와 교육을 연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평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선 피평가기관의 방어적 태도 인데요. 이는 평가 목적이 ‘지적’이 아닌 ‘개선’임을 설명하며 신뢰를 쌓아 해결합니다. 또 하나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인데, 표준화된 기준과 이중 검토로 이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현장과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유연하게 적용하고 현장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Q. 박 과장만의 안전 철학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저는 안전문화 확산을 ‘콩나물 기르기’에 비유해요. 콩나물은 어둡고 물 빠짐이 좋은 용기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을 줘야 잘 자랍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으나 끊임없이 정성을 쏟아야 싱싱한 콩나물을 만들 수 있죠. 안전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무관심과 안전 불감증 속에서도 기술 지원, 교육, 홍보,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국민 모두가 안전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Q.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공공기관은 모범적인 안전보건 경영으로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안전을 경영 지표에 반영하고 자율 예방 시스템을 운영해야 해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은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만큼 ‘신뢰받는 파트너’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별 맞춤형 지도와 체험형 교육으로 현장의 실질적 안전을 높여야 하죠.”

Q.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을 말해주세요.

“보이지 않아도 자라는 안전문화의 뿌리를 심고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참여형 콘텐츠 확대, 외국인·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강화, 실천 중심의 컨설팅 시스템 구축을 하려 해요. 특히 청소년, 대학생, 사회 초년생 같은 미래 세대에게도 안전문화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은 혼자서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인천 SSG랜더스필드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글.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

지역 안실단 활동 우수사례 인천광역시본부

7월 31일,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이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렸다.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가운데,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사전에 SNS를 통해 일정을 홍보하여 다수 시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경기 2시간 전부터 캠페인 시작을 기다리는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한 덕분에 행사를 준비하는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하 안실단) 단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이어 선수단 버스를 마중하기 위해 일찌감치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까지 합세하며 랜더스필드 1번 출구(프런티어 스퀘어)는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는 관중으로 가득 찼다.



랜디, 푸리, 배티와 함께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참여자들은 안실단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구독하고 이를 인증하는 것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어 온열질환에 대한 인식도 조사, 슬링샷으로 과녁을 맞히는 스트라이크존 이벤트가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스트라이크존 점수에 따라 코사데이 보냉주머니, 쿨링물티슈, 부채, 음료 등 사은품을 받았다.

캠페인이 한창인 오후 5시 즈음에는 SSG랜더스의 마스코트인 랜디, 푸리, 배티가 행사장을 찾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스코트들은 안실단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참여자들과 소통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메시지, 중계화면 타고 전국으로

야구장 밖 캠페인을 마무리한 안실단은 구장 내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시구를, 송만호 동서식품(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가 시타를 했다. 관중석 입구마다 캠페인 인쇄물을 비치했고 외야석에는 '건강한 여름을 위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이 경기를 시청한 전국 야구팬들에게 폭염 안전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닝 간에는 온열질환을 주제로 한 전광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브라운관을 통해서도 캠페인을 만날 수 있었다. 중계 도중 가상 광고를 송출하고 해설진이 온열질환 예방 멘트를 하는 등 경기 내내 캠페인 메시지가 전달되게 했다. 프로야구 매거진 프로그램인 '아이러브 베이스볼'은 이날 캠페인 관련 멘트를 클로징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기장에서 전달된 메시지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나아가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생생 Talk Talk! 미니 인터뷰

정찬연 프로
삼성바이오



Q. 오늘 행사에 참여한 계기가 있나요?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하던 차에,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안심단 채널 구독을 권하고 설문조사도 하면서 많은 분에게 온열질환 예방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Q.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특히 신경 쓰는 것이 있나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장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모든 작업자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합니다. 외부 작업을 담당하는 인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비교적 기온이 낮은 시간에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또 쿨링 패드 등 온열질환 예방 키트를 배포해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합니다.”

Q.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캠페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무더위를 훌쩍처럼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안심단 채널 구독을 권하고 설문조사도 하면서 많은 분에게 온열질환 예방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허정식 팀장
동서식품



Q. 야구장 캠페인에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이전에도 안심단과 캠페인을 함께하곤 했습니다. 낮익은 얼굴도 있어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지역 기온이 상승해 폭염 경보가 발효되었는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이 시의적절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 오시는 시민분들에게 행사 취지를 열심히 설명해드렸으니, 오늘 캠페인 내용을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평소 회사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실천하는 활동이 있나요?

“우리 동서식품은 부평, 창원, 진천에 공장이 있고 각 지역 거점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외 근무자가 많다 보니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Q. 오늘 캠페인 주제인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협력업체 노동자 한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작년보다 작업 환경이 쾌적해서 좋다, 여름에는 냉온수기가 설치돼 일하기 수월하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사소한 변화를 알아봐 주시니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Q.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온열질환은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있으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알리고, 예방수칙을 실천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에 있는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2만 6천개소)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현장밀착형 산재예방 활동

주요내용

- 1 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상시관리
- 2 가용인력 총동원하여 사업장 불시 점검
- 3 5대 중대재해* 및 폭염분야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 즉각시정 ▶ 미이행시 엄단



*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과제 수시 공모

공모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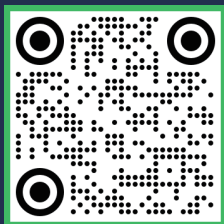
안전보건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 주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

제안 방법



좌측 QR코드로 접속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 (oshri.kosha.or.kr) → 참여마당 →
연구과제 제안

기타 사항



참여자에게 커피 교환권(1만원 상당) 증정 예정

※ 공모 주제와 무관한 경우 증정 대상 제외



'공동안전관리자'가 만드는 안전한 일터 현장이 바뀐다!

글. 광진호 차장_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

“공동안전관리자는 월 1~2회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기반의 핵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추락, 끼임, 부딪힘... 산업 현장의 재해는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개선하는 안전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인 이상 49인 이하)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을까?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힌 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3년 8월 내놓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준비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3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예산 부족'(27.4%),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등 의무사항이 너무 많고 내용이 복잡해서'(22.8%) 순이었다.

이처럼 인력, 예산, 정보 모든 면에서 자원이 부족한 현실은 중소기업 사업장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제도

2024년부터 시작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제도는 지역별·업종별 협회·단체가 안전관리 전문 컨설턴트인 공동안전관리자를 직접 운영하고, 공단이 그 운영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여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안전관리자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동안전관리자의 역할

공동안전관리자는 월 1~2회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기반의 핵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목표는 사업장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정착이다.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제도 성과와 과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4년에는 총 363명의 공동안전관리자가 약 53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3622개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했다. 그 결과, 참여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 초기에는 낮은 인지도와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의 어려움으로 참여가 다소 저조하였으나, 전국 설명회 및 미디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110여개 협회·단체와 2024년 3622개, 2025년 3729개의 사업장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제도에 참여했다. 하지만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이 많다. 더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공동안전관리자 전문성 강화는 계속 진행 중

안전보건공단은 업종별 기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컨설팅 노하우를 공유하고,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공동안전관리자의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5대 중대재해 및 12대 핵심 안전 수칙'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사업장의 핵심 위험 요인을 놓치지 않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각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스스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향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이후로도 여전히 다수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업종의 협회·단체 참여는 물론, 지방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4년 우수사례

현장과의 '소통'으로 사망사고 제로를 이룬다

시멘트 산업은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고위험 업종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였다. 시멘트 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한국시멘트협회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제도'를 통하여 9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운영하였다. 협회는 자체적인 '현장 동행 평가'를 운영하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컨설팅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였다.

그 결과, 참여 후 현장의 TBM(Tool Box Meeting) 활동과 위험성평가가 주도적으로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협회의 적극적인 공동안전관리자 운영과 현장과의 소통이 안전문화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준 우수사례이다.

사업장 대표 인터뷰

Q. 대표께서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어떤 점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으셨나요?

A. 최영희 미성 대표: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안전 분야 전문인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인터뷰

Q. 공동안전관리자로서 여러 사업장을 담당하는데,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관리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정규복 공동안전관리자: 같은 업종의 회사들을 계속 방문하고 관리하다 보니, 해당 산업의 공정 특성과 핵심 위험 요인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업장 상황에 맞는 '업종별 특화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천공기 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KEY MESSAGE'

주요 사고 사례

- (2025. 7. 28.)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로 사면 보강을 위한 작업 중 착용한 안전대의 로프가 회전축에 접촉되며 신체 일부가 말림(추정) <사망 1명>

천공기* 안전 작업

*암석이나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기계

◀ 주요 위험 요인 및 안전대책 ▶



침하방지 깔판 사용



고압선 절연 및 방호조치

넘어짐

위험 요인

- 연약지반에서 작업 중 지반 침하로 천공기 넘어짐

안전대책

- 천공기 작업구역 지반 평탄작업 및 침하 방지조치 실시

물체에 맞음

위험 요인

- 경사법면에서 떨어지는 부석에 맞음
- 지질 불안정 등으로 인한 낙석

안전대책

- 작업구간 경사법면의 부석 제거작업 실시 및 낙석 방지망 설치

감전

위험 요인

- 발전기 충전부 노출 및 노동자 신체 접촉

안전대책

- 작업반경 내 고압선 방호조치
- 고압선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재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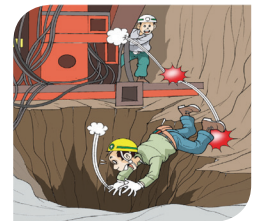
터널 수직갱 천공작업 중 떨어짐

재해 원인

- 깊이가 깊은 대형 개구부에 추락방망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추락 위험장소에서 안전로프에 안전대를 걸지 않고 이동

예방 대책

- 개구부에 노동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충분한 강도를 가진 추락방망,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 추락 위험장소에서 안전로프에 안전대를 반드시 걸고 작업하거나 이동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천공기 작업' 재해 예방 관련 안전보건 콘텐츠

- (O P S) 천공기 작업안전(관리자용 & 노동자용)
- (책 자) 천공기 운전자의 안전보건
- (교 안) 천공기 운전자의 안전보건



QR코드를 스캔하면 '천공기 작업' 관련 안전보건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크레인 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KEY MESSAGE'

주요 사고 사례

- (2025. 7. 21.) 경남 창원에서 천장크레인으로 공구함 인양 중 떨어지는 공구함에 맞음 <사망 1명>
- (2025. 7. 9.) 충남 서산에서 이동식크레인 해체작업 중 고정핀에 맞고 떨어짐 <사망 1명>
- (2025. 7. 1.) 인천에서 크레인으로 작업대 운반 중 작업대에 맞음 <사망 1명>

크레인 작업 시 주요 안전조치



01 안전밸브의 조정

- 크레인의 정격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들어 올리지 못하도록 안전밸브로 압력을 제한

02 해지장치의 사용

- 크레인 훅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고 손상 또는 무효화 여부 확인
- *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03 경사각의 제한

- 지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크레인 설계 사양대로 경사각 범위에서 사용

04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확보

- 주행·선회 크레인인 건설물·설비의 사이에 통로 설치 시 폭 0.6m 이상 확보

05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유지

-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이 너무 큰 경우 0.3m 이하의 간격으로 유지
(다만, 떨어짐 위험이 없는 경우 예외 허용)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크레인 작업' 재해 예방 관련 안전보건 콘텐츠

- (O P S) 크레인 안전조치
- (동영상) 이동식크레인 작업 재해 예방
- (포스터) 고위험 요인-크레인작업
- (V R) 사고 사례 <천장크레인편>



QR코드를 스캔하면 '크레인 작업' 관련
안전보건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감전' 사고 예방

제공 언어
(20개)

네팔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카자흐스탄어, 캄보디아어, 키르기스스탄어, 태국어, 튀르키예어, 파키스탄어

○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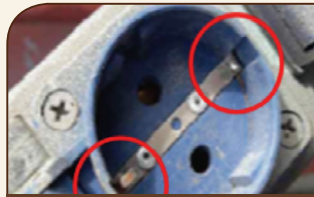
-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은 유자격자가 실시
- 전기작업 시 전기 차단 및 투입 등의 작업순서는 작업계획서 등에 작성된 작업 절차 준수
-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절연용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
- 전기의 투입·차단 여부를 알 수 없는 전선이나 설비는 함부로 만지거나 작업하지 않음
- 전기기계·기구는 절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사용
- 신체, 옷 등이 물에 젖거나 습윤한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거나 만지는 등의 행위 금지
- 물이 고여 있는 바닥 등 습윤한 곳에 전선 방치 금지
- 접지가 필요한 전기기계·기구, 작업 대상 전기 설비 등은 올바르게 접지(녹색의 접지선과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 및 작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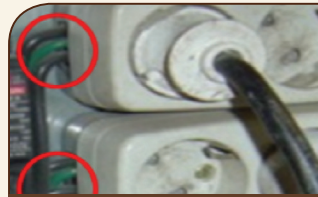
기기 외함 접지 실시



배전반 문 접지(녹색선)



콘센트 접지극



가설콘센트 접지(녹색선)

-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절연용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

안전모	- 내전압성을 가진 안전모 착용 - 등급에 'E'가 포함된 것																								
절연화	- 규격 혹은 등급 등에 '절연화'가 적힌 것																								
절연장갑	- 작업에 적합한 내전압용 절연장갑 사용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00</th> <th>0</th> <th>1</th> <th>2</th> <th>3</th> <th>4</th> </tr> </thead> <tbody> <tr> <td>최대 사용 전압</td> <td>교류 (V, 실효값)</td> <td>500</td> <td>1,000</td> <td>7,500</td> <td>17,000</td> <td>26,500</td> <td>36,000</td> </tr> <tr> <td></td> <td>직류(V)</td> <td>750</td> <td>1,500</td> <td>11,250</td> <td>25,500</td> <td>39,750</td> <td>54,000</td> </tr> </tbody> </table>	등급	00	0	1	2	3	4	최대 사용 전압	교류 (V, 실효값)	500	1,000	7,500	17,000	26,500	36,000		직류(V)	750	1,500	11,250	25,500	39,750	54,000
등급	00	0	1	2	3	4																			
최대 사용 전압	교류 (V, 실효값)	500	1,000	7,500	17,000	26,500	36,000																		
	직류(V)	750	1,500	11,250	25,500	39,750	54,000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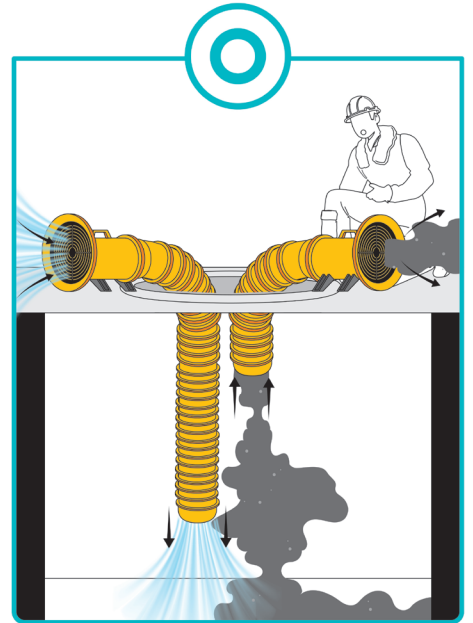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에게 SNS 메신저로
'감전' 사고 예방 콘텐츠를 공유해 주세요.

공유 방법

- 1 QR코드 스캔 >
- 2 이미지 클릭 >
- 3 필요한 언어로 제작된 이미지 선택 >
- 4 외국인 노동자에게 공유

그림으로 보는 안전

•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림으로 보는 질식 재해 예방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SNS 메신저로
‘그림으로 보는 안전’을 공유해 주세요.

공유 방법

- ① QR코드 스캔 > ② 이미지 클릭 >
- ③ 외국인 노동자에게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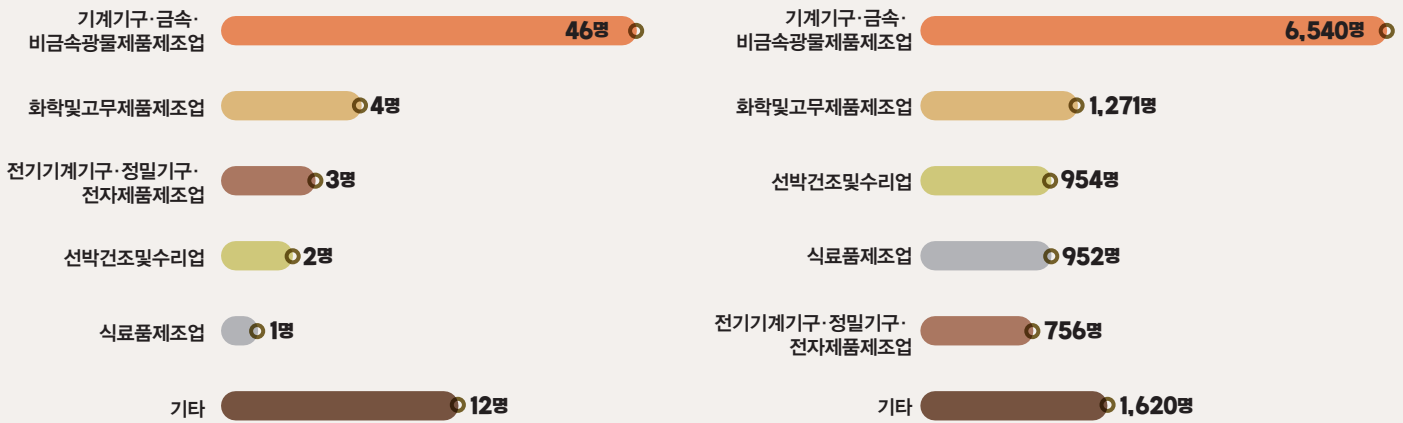
산업재해 통계

제조업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5대 중대재해> 부딪힘 편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조업 부딪힘 재해

최근 5년간 제조업에서 부딪힘으로 사고재해자 12,093명 발생,
 그중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54.08%),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10.51%)에서 다수 발생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현황(68명)

최근 5년간 사고재해자 현황(12,093명)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조업 '부딪힘' 사고재해자 현황

연도	계	2024	2023	2022	2021	2020
합계	12,093명 100.00%	2,795명	2,626명	2,327명	2,195명	2,150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6,540명 54.08%	1,515명	1,421명	1,256명	1,149명	1,199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1,271명 10.51%	249명	276명	240명	263명	243명
선박건조및수리업	954명 7.89%	278명	210명	191명	139명	136명
식품제조업	952명 7.87%	235명	231명	186명	165명	135명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	756명 6.25%	173명	164명	139명	155명	125명
기타	1,620명 13.40%	345명	324명	315명	324명	312명

※ 사고재해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 기타: 금속제련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출판·인쇄·제본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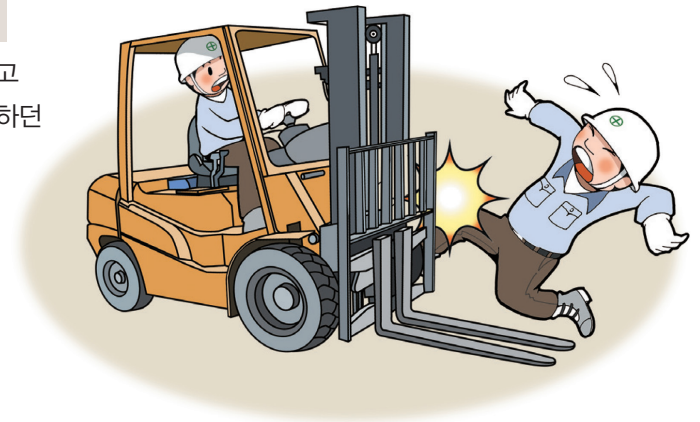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각종 기계와 금속·비금속 광물제품을 가공·제조하여 운송기계, 산업기계, 금속·요업·시멘트 등 다양한 산업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재해 사례

작업장 통행 중 지게차에 부딪힘

원자재 야적장에서 자재 운반을 마치고 주차하기 위해 옥내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지게차에 재해자 부딪힘



발생 원인

-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통로 미확보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예방대책

- 작업장 내에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통로 확보(지게차와 노동자 이동통로를 색으로 구분 등)
- 작업지휘자의 지정 및 지게차 작업 장소에 노동자 출입 금지 조치 등으로 접촉 방지

재해 사례

회전 중인 풀리에 부딪힘

폐고무 재생 작업장에서 롤러기를 가동하여 작업하던 중 롤러기 후방에 있는 감속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기 위해 이동하다 회전하는 풀리*에 부딪혀 사망
* 풀리: 바퀴에 힘을 파고 이에 줄을 걸어 돌려 물건을 움직이는 장치



발생 원인

- 기계의 회전축·풀리 등 동력 전달 부위에 방호덮개 등 미설치
- 기계 운전 중 급유 실시

예방대책

- 기계의 원동기·회전축·풀리·벨트 등에 덮개, 울, 슬래브, 건널다리 등 설치
- 기계의 청소·급유·정비·검사 시에는 운전을 정지한 후 실시하고, 조작부에는 조작금지 표지판 등을 부착

산업재해 통계

운수·창고·통신업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5대 중대재해> **부딪힘 편**

최근 5년간(2020~2024년) 운수·창고·통신업 부딪힘 재해

최근 5년간 운수·창고·통신업에서 부딪힘으로 사고재해자 3,993명 발생
그중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56.40%), 육상및수상운수업(41.42%)에서 다수 발생

육상및수상운수업 23명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2,252명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22명

육상및수상운수업 1,654명

통신업 87명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현황(45명)

최근 5년간 사고재해자 현황(3,993명)

최근 5년간(2020~2024년) 운수·창고·통신업 '부딪힘' 사고재해자 현황

※ 사고재해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연도	계	2024	2023	2022	2021	2020
합계	3,993명 100.00%	1,219명	962명	684명	615명	513명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2,252명 56.40%	562명	492명	449명	396명	353명
육상및수상운수업	1,654명 41.42%	628명	451명	227명	199명	149명
통신업	87명 2.18%	29명	19명	8명	20명	11명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 서비스업

철도·항공 여객·화물 운송, 창고·보관·하역 및 각종 운수지원 서비스를 아우르는 교통·물류 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버스·택시·화물차 등 육상 운송과 여객선·화물선·유람선 등 수상 운송을 통해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산업

통신업

우편·전기통신을 통한 정보와 물자의 전달 및 신문·화폐·우표 발행을 포함하는 산업

재해 사례

이동 중인 차체에 부딪힘

전동차량에서 차체와 대차를 분리한 후 천장크레인으로 차체를 이동시키던 중 재해자가 차체에 부딪힘



발생 원인

- 천장크레인 운전자가 수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 시작
- 천장크레인 작업구역 내 작업자의 출입 금지 조치 미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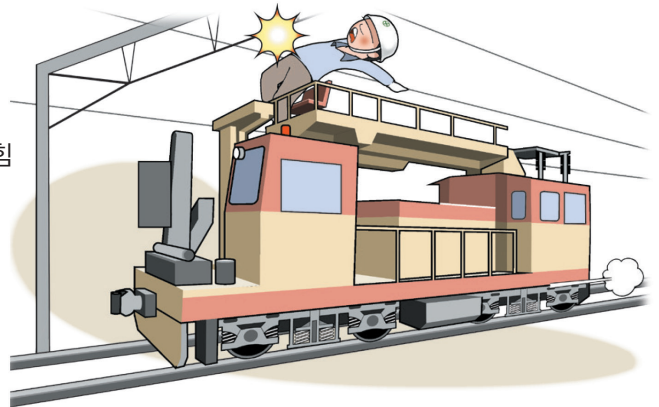
예방대책

-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 작업 유도
- 천장크레인 운전자는 작업지휘자의 수신호를 확인하며 운전
- 천장크레인 작업 시작 전 작업구역 내 다른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

재해 사례

전철주 브라켓에 부딪힘

전차선로 작업을 위하여 모터카 상부 작업대에 오른 상태로 모터카 이동 중 재해자 안면 부위가 전철주 브라켓에 부딪힘



발생 원인

- 모터카 상부에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로 모터카를 운행
- 안전 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예방대책

- 모터카 운행 시 운전석 외 탑승을 금지하고 주위 장애물을 확인하며 운행
- 모터카 작업 시에는 운행 방법, 작업순서 및 안전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죽음의 동선, 부딪힘을 막아라

글. 이현정_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부딪힘 재해의 현주소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법 제1조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 시행 후 약 3년 반이 지난 2025년 상반기까지 기소된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총 121건이며, 발생 빈도가 높은 재해 유형 3가지는 추락, 끼임, 부딪힘(맞음) 포함이다. 그중 부딪힘 재해가 19건으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한다.

'부딪힘'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공간·설비·절차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글에서는 부딪힘과 관련해서, 서천 공장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선고된 판결들을 통해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공포의 지게차, 방치된 무면허 조종

A사는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회사의 공장에서는 지게차 운전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 상당수에게 면허가 없었고,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수년간 방치해 왔다는 점이다. 심지어 지게차 열쇠가 현장에 그대로 꽂혀 있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시키는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2023년 1월 9일 외국인 노동자 B씨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팔레트를 교체하던 동료 노동자 C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지게차 백레스트와 선반 사이에 끼여 골반이 골절되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사고는 단순한 개인 과실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구조적·지속적인 관리 부실의 결과로 평가했다.

A사의 대표이사인 D씨는 당시 전무이사인 E씨가 A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노동자 B씨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점을 알지 못했으며, 그럼에도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4년 9월 26일 노동자 B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대표이사 D씨와 법인인 A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인정하여 벌금 5000만원씩을 선고¹⁾했다.

법원은 보고체계, 안전관리와 관련한 회의 등을 주관한 주체,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표이사인 D씨가 실질적인 산업안전관리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 차원의 관리 체계 미비를 상세히 적시했다. ▲사업장 특성상 지게차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데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 자체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반기 1회 이상의 점검도 없었으며, ▲무면허 운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묵인했고, ▲운반용 등 하역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노동자당 16시간의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대표이사인 D씨가 무면허 지게차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경영책임자가 구체적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위험이 구조적으로 방치된 상황에서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영책임자가 위험이 눈앞에 드러나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면 몰랐다는 항변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

조선소 승강설비 교체 작업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2022년 3월 25일 거제시 소재 F조선소에서 노동자 G씨가 크레인 설치된 승강설비의 메인 와이어로프 교체 작업 중 떨어지는 철제 소켓(무게 3~5kg)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 소켓은 와이어에 연결됐던 것이고, G씨는 승강설비 박스형 몸체 상부에 올라 작업 중이었다.

01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사고 발생 후 A사가 원청으로부터 산업안전 개선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이 참작되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머지 판결들도 최근 1심 선고가 된 사건들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원은 2025년 2월 19일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은 인정했으나,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해 당시인 2022년 3월에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작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승강기 교체 작업이 단순 노무공급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공작물에 부착돼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전문건설 공사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작업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례적 사고의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2022년 2월 9일 대구시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 H씨는 플라스틱 측정용 수공구를 망치처럼 사용해 금속 링을 두드렸다. 이어 I씨는 이 수공구를 만연히 NSK-200톤 압축 성형기 내부 슬라이드 판에 올려둔 채 기계를 작동시켰다. 그러자 200톤의 압력을 받은 수공구가 총알처럼 튀어 7m 떨어져 있던 노동자 J씨의 이마를 때렸다. J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검찰은 대표이사인 K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 사업주 및 해당 작업 노동자 H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K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않는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공구의 목적 외 사용을 방치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수공구가 본래 '측정용'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 현장에서는 과거부터 수공구를 안착용으로 사용해왔다.
- 경영책임자 등이 이런 사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수공구 사용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미흡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즉 법원은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본 것이다. 이례적 사고라면,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책임자에게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유사한 사고가 있었거나 관리자가 이런 위험한 사용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재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이상의 3건에 대한 판결 결과는 다 달랐지만, 법원 판단의 공통된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그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지다.

'무면허 지게차 조종' 사건은 작업장 내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던 누구나 아는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위험을 가볍게 여긴 경우다. '크레인 와이어로프' 사고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무죄였다. 하지만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상하 동시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수공구 비례'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라며 무죄가 선고되었다.

실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점은 분명하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사고나 위험한 관행을 모두 기록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예견 가능성'을 입증하거나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 새로운 설비·물질·공정을 도입할 때마다 위험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법원이 반복해 강조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알 수 있었는데도 무시한 것이 문제다.

이 글에 사용된 법령 용어 가이드

부칙: 법령의 본문에 부수하여 시행일, 경과조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부분

미필적 고의: 고의의 한 형태로 인정되며, 대법원은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경우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함

상당인과관계: 범죄 발생과 원인의 관계에 관한 유형의 하나로, 어떤 원인이 있으면 보통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인정되는 관계임. 즉 그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 결과에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되고 상당한 책임의 기초가 된다는 학설, 대법원의 입장

숲속의 보물, 버섯: 가을의 맛과 향을 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 우리의 미각을 가장 먼저 유혹하는 것은 흙 내음과 나무 향을 머금은 버섯입니다. 버섯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숲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가장 귀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콧은 비가 내린 다음날 아침, 숲속의 젖은 나무 그루터기나 낙엽 사이를 비집고 홀연히 솟아나는 버섯의 모습은 생명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 신비로움 때문에 옛사람들은 버섯이 버락 친 곳에서 솟아난다거나, 요정들이 밤새 춤을 춘 자리에 생긴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글. 김현학 _jamfoodstylist 대표, 푸드 디렉터
한국식문화진흥원 원장

버섯은 화려한 채소나 과일처럼 뽐내지 않지만, 그윽한 향과 쫄깃한 식감, 깊은 감칠맛으로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합니다. 찜에 들어가 국물 맛을 진하게 하고, 볶음 요리에서는 주연 배우가 되며, 밥 위에 소복이 올라앉아 가을의 정취를 더합니다. 버섯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때로는 식량, 때로는 약, 때로는 신비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9월을 맞아 숲속의 보물인 버섯이 품고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비밀을 만나보려 합니다.

역사 속의 버섯, 신의 선물에서 불로초까지

버섯과 인류의 인연은 까마득한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5300년 전의 냉동 미라 ‘아이스맨 외치’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자작나무버섯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버섯을 약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버섯은 항균 효과가 있어 천연 항생제나 상처 치료제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버섯을 ‘신들의 음식’이라 부르며 특별히 여겼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고 믿었고, 귀족들은 자신들만 즐기는 고급 식재료로 삼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만 버섯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신비로운 효능 덕분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의 버섯 사랑은 더욱 각별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불로장생의 명약을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가 애타게 찾던 불로초가 바로 ‘영지버섯’이었다는 사실은 버섯의 약효에 대한 옛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신라 성덕왕에게 버섯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처음 등장하며, 고려 시대에는 독특한 솔향을 자랑하는 송이버섯이 중국 황실에 보내는 귀한 진상품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조선 시대의 의학서 <동의보감>에는 송이, 표고, 목이 등 다양한 버섯의 성질과 효능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버섯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약재이자 중요한 식재료였음을 증명합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우리 식탁 위 대표 버섯들

전 세계에 알려진 버섯의 종류는 수만 가지에 이르지만,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은 20종 남짓입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우리 식탁 위 단골손님들을 더 깊이 알아볼까요?

- **국민 버섯, 표고버섯** — ‘버섯의 왕’이라는 별명답게 맛과 향, 영양이 모두 뛰어납니다. 쫄깃한 식감은 고기 못지않고,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구아닐산 성분이 풍부해 국물 요리의 격을 높여줍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건표고는 비타민D가 풍부해 ‘주부님들의 지혜’가 담긴 식재료로 꼽힙니다.
- **향의 제왕, 송이버섯** — “향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보적인 솔향이 특징인 귀한 버섯입니다. 인공 재배가 불가능해 가을철 소나무 숲에서만 잠깐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죠. 씹을수록 입안 가득 퍼지는 향긋함과 아삭한 식감은 다른 어떤 버섯도 흉내 낼 수 없는 매력입니다.



- **만능 재주꾼, 느타리버섯 & 팽이버섯** — 가장 대중적인 버섯들이죠. 느타리버섯은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향으로 찌개, 전골, 볶음 등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만능 재주꾼입니다. 팽이버섯은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으로, 국물 요리나 볶음 요리에 식감을 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보너스입니다.
- **고기 식감, 새송이버섯 & 양송이버섯** — 새송이버섯은 굵고 단단한 기둥이 마치 고기를 씹는 듯한 쫄깃한 식감을 줍니다. 버섯에 통으로 구워 스테이크처럼 즐기면 그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양송이버섯은 서양 요리의 단골손님으로,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고소해 크림 수프나 파스타, 피자과 환상의 궁합을 이룹니다.
- **오독오독 재미있는, 목이버섯** — 잡채나 탕수육에 보석처럼 숨어 있는 목이버섯은 꼬들꼬들하고 오독오독한 식감이 매력입니다. 물에 불리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며, 비타민D와 철분이 풍부해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 **치매 예방하는, 노루궁뎅이버섯** — 이름처럼 노루의 엉덩이를 닮은 탐스러운 외모가 특징입니다. 이 버섯이 주목받는 이유는 ‘헤리세논’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뇌세포를 활성화해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맛이 순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탕이나 볶음, 수프로 즐기기도 좋습니다.
- **향이 천하일품, 능이버섯** — 예로부터 ‘1 능이, 2 표고, 3 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향을 최고로 칩니다. 깊고 진한 흙냄새와 나무향은 다른 버섯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하여, 닭백숙이나 오리백숙에 넣으면 잡내를 잡아주고 국물 맛을 보약처럼 만들어 줍니다.
- **땅속의 다이아몬드, 트러플(송로버섯)** —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꼽히는 트러플은 ‘땅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릴 만큼 귀하고 비싼 버섯입니다. 인공 재배가 불가능하며, 훈련된 개나 돼지를 이용해 채취합니다.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음식 전체의 풍미를 지배하는 강렬하고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 오일이나 소금 형태로 많이 활용됩니다.



환절기 가족 건강, 버섯으로 지키세요!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느라 면역력이 뚝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감기, 독감, 알레르기 비염 등이 어김없이 찾아오곤 하죠. 이때 우리 가족의 건강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가 바로 버섯입니다.

- **면역력의 파수꾼, 베타글루칸** — 버섯의 대표 영양소인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는 전문 트레이너와 같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 잠자고 있던 면역세포(NK세포, 대식세포 등)를 깨워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에 맞서 싸울 준비를 시킵니다.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등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환절기 질환을 예방하는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 **혈관 청소부, 성인병 예방** — 버섯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식품입니다. 거의 모든 버섯이 칼로리는 매우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은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도 풍부해 평소 짜게 먹는 식습관이 걱정된다면 버섯을 자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리 집 천연 비타민D 영양제** — 비타민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대부분 햇빛을 통해 합성되지만, 버섯은 식물성 식품 중 드물게 비타민D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표고버섯은 생표고보다 비타민D 함량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맑은 가을날, 베란다에 표고버섯을 몇 시간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을 위한 천연 비타민D 영양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완화** — 버섯은 신경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군과 가바(GABA)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깊은 숲의 기운을 품은 버섯의 향기는 그 자체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가을철 우울감을 이겨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을 산행, 독버섯 주의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가을은 버섯 산행의 계절이지만, 즐거움만큼이나 위험도 따릅니다.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을 먹으면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고 안전하게 버섯을 즐겨야 합니다.

- **“색이 화려하면 독버섯, 수수하면 식용버섯이다?”**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독버섯 중 하나인 ‘독우산광대버섯’은 오히려 순백색으로 매우 깨끗하고 수수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벌레 먹은 버섯은 안전하다?”** 아닙니다! 벌레나 달팽이가 먹을 수 있는 독성 성분과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성 성분은 다릅니다. 벌레가 먹었다고 해서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세로로 잘 찢어지면 식용버섯이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버섯은 세로로 찢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맹독성 버섯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역시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속설입니다.
- **“은수저를 넣었을 때 색이 변하지 않으면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은수저는 일부 독성 물질에만 반응할 뿐, 버섯의 모든 독에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근거 없는 미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은 단 하나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버섯이 아니면 절대 채취하지도, 먹지도 마세요.” 전문가조차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야생 버섯은 함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야생 버섯을 먹고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며, 이때 먹고 남은 버섯을 가져 가면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버섯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는 법

- **고르는 법** 버섯은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갓의 모양이 균일하고 색이 선명하며, 표면에 상처나 점액이 없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갓이 너무 피지 않고, 기둥이 단단하고 탄력 있는 것이 신선합니다.

- **손질 및 보관법** 버섯은 수분을 쉽게 흡수해 향이 날아가고 식감이 물러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물에 오래 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물질은 젖은 행주나 키친타월로 가볍게 닦아내거나, 흐르는 물에 빠르게 헹궈서 없애야 합니다. 보관 시에는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감싸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분이 유지되어 며칠간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 **건강한 조리법** 버섯의 비타민D는 지용성이므로 기름에 살짝 볶거나 구워 먹어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 등을 말리면 감칠맛 성분인 구아닐산과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더욱 깊은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 버섯 요리 한 접시: 따뜻한 버섯 샐러드 레시피

가을의 신선함과 버섯의 깊은 풍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버섯 샐러드’를 제안합니다. 갓 볶아낸 따뜻한 버섯과 신선한 채소가 발사믹 드레싱과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고, 근사한 한 끼 식사나 브런치 메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재료(2인분 기준) —

- **주재료:**
모듬 버섯(새송이, 양송이, 표고 등) 200g,
샐러드용 채소(루콜라, 양상추 등) 한 줌,
애호박 또는 주키니 1/4개, 양파 1/4개
- **드레싱:**
올리브오일 3큰술,
발사믹 식초 1.5큰술,
꿀 또는 올리고당 1작은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 **부재료:**
파마산치즈 가루 약간, 견과류(선택)

만드는 법 —

1. 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애호박은 반달로 썰고, 양파는 채 썩니다.
2. 샐러드 채소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접시에 넓게 깔아둡니다.
3. 드레싱 재료(올리브오일, 발사믹 식초, 꿀, 다진 마늘, 소금, 후추)를 작은 볼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4. 달군 팬에 올리브오일을 약간 두르고 양파, 버섯, 애호박 순으로 넣어 소금, 후추로 간을 하며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5. 채소를 깔아둔 접시 위에 따뜻하게 볶은 버섯과 채소를 올립니다.
6. 만들어 둔 발사믹 드레싱을 골고루 뿌리고, 파마산치즈 가루와 견과류를 뿌려 완성합니다.

TIP —

- * 버섯을 볶을 때 화이트와인 한 스푼을 넣으면 풍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 * 닭가슴살이나 소고기를 구워 곁들이면 더욱 든든하고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국내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인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력 단속 실시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의심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과 함께 불시 현장 감독 병행 실시
 -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

맨홀 질식 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고용노동부는 최근 맨홀 작업 중 질식 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맨홀 질식 사고 근절 특단 대책’ 추진

- 올해 7월까지 맨홀 작업 중 6명 사망, 전년도(사망 1명)보다 크게 증가
-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환기 미실시, 보호장비 미착용 등이 주요 원인
-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 추진
 -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확인
 - * ①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충분한 환기, ③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 안전보건공단 등은 ‘맨홀 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 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 연계

국제

고령화 노동시장, 평생 안전보건체계가 국가경쟁력의 열쇠

유럽에서는 고령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고위험 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호조치를 도입

-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40세를 넘어섬. 유럽연합(EU)은 2023년 기준 55세 이상 노동자가 전체 노동력의 1/4 차지
 - 한국의 중위연령은 2018년 43세에서 2050년 56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임

<고령 노동자의 특성과 안전보건관리>

- (특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과거부터 누적된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 위험이 증가
 - 사고율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더 치명적일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
 - (정책·제도) EU 다수 회원국은 정년 연장, 조기퇴직 억제와 함께 부분 은퇴나 ‘80-90-100제도’* 등 단계적 은퇴 모델을 도입해 고령 노동자 고용 유지 지원 * 근로시간 80%, 임금 90%, 연금 100%
 - (건설업) EU 전체 건설종사자 중 50세 이상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숙련공 부족을 이유로 정년 연장을 추진

※ 덴마크에서는 고령 노동자에게 추가 유급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등 퇴직 전 몇 년간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규정

- (제조업) 청년·중장년층 노동자의 유입 정체에 따라, 다수 국가에서 법정 퇴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해 60대 작업자의 현장근무가 일상화 됨. 고령 숙련인력의 유지가 공급망 안정의 핵심 과제로 부상
- (청소·환경미화업) 비교적 단순노무직이면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아 고령 여성 노동자가 다수 종사. 반복된 동작, 무거운 장비 이동 등 작업 환경상 다양한 위험으로 고령 노동자의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음

<시사점>

- 고령화로 인한 위험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시 ‘연령 별 기능·인지 변화’ 항목을 도입. 고령자가 많은 건설·돌봄·청소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표준 작업 강도 등 기준 마련
- 고령 노동자의 고용 유지는 산업안전보건 강화, 건강한 작업 환경 조성, 경력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음
- 고령 노동자의 고위험 직무 특성을 반영해 국내에서도 65세 이상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현장에 인체공학 장비와 협동 로봇의 보급을 확대

9월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문화관광축제가 속속 개최된다.
 각 지역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놓치지 말자!

● 대한민국 독서대전 김포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매년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연다. 올해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김포시는 ‘책으로 새로고침’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약 170개의 독서·출판·문화 분야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본행사는 9월 19일~21일 열린다. 이 기간 김포한강중앙공원, 장기 도서관 등에서 작가와의 만남, 북마켓, 학술토론, 공연 및 전시 등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8월까지 ‘새로 알다’ ‘새로 잇다’ ‘새로 심다’ ‘새로 퍼다’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명사 특강’ 등이 진행됐다.

기간: 2025년 9월 19일 ~ 21일 장소: 경기도 김포시 초당로 40(장기동) 김포한강중앙공원



● 안산 대부포도축제

1995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대부에 취하자, 즐기자, 빠지자! 대부에서 놀자!’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주제 프로그램은 포도 전시 및 품평, 대부포도 및 안산시 농특산물 직거래이다. 대부포도는 해풍을 맞고 자라 풍미가 좋고 당도가 높다. 대부포도 오감만족 등 체험 프로그램, 대부동의 과거와 현재 모습 전시 등 지역문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안산 마라톤대회 (21일), 대부해솔길 걷기 축제(20일) 등과 연계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기간: 2025년 9월 19일 ~ 21일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480-7 대부바다항기테마파크



● 울산 고래축제

울산의 대표축제 중 하나로 근대 포경산업의 중심지였던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열린다. 29회째인 올해는 ‘고래의 선물(Gift from a Whale)’이라는 주제로 생태와 예술, 기술과 체험이 어우러진 미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고래불꽃쇼, 고래 열린음악회, 트루 고래쇼, 고래가족 가요제 등이 메인 프로그램으로, 범고래 그래피티 아트, 장생이와 춤추는 곰돌 등이 부대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황금고래 보물찾기, 고래쉐프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기간: 2025년 9월 25일 ~ 28일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매암동)



● 서산 해미읍성축제

국가유산인 서산 해미읍성에서 축성 600년의 깊은 역사와 전통에 오늘의 감성을 더해 펼쳐진다. 올해는 ‘지혜’를 주제로, 선조들의 슬기로운 삶과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해미 더 클래식, 해미해피콘서트, 고성방가EDM파티 등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공연과 전통 혼례체험, 전통놀이체험 등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해미해피데이 등 지역 상생 프로그램도 열린다.

기간: 2025년 9월 26일 ~ 28일 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143



산재근로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산재근로자 심리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1. 심리상담

이용대상 | 산재근로자(입원 및 통원 요양자, 장애 판정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상담주제 | 개인심리/정서, 성격 및 성향,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족 관련 등

상담방법 | 대면, 화상, 전화, 채팅, 게시판 중 희망방법에 따라 진행

이용한도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간 최대 6회(1회 50분 기준)

이용기간 | 2025.04.21. ~ 2025.12.31.

신청·문의 |  홈페이지 comwelmind.happymint.kr

 전화신청 1644-4474(평일 09:00~18:00)

 위기/긴급상담 1644-4474 ▶ 0번

심리상담 신청



* 다차원심리검사결과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회원가입 및 대상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후 승인되신 분들께 별도로 안내 드리며, 이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집단프로그램

이용대상 | 산재근로자(입원 및 통원 요양자, 장애 판정자)

프로그램 | • 스트레스 관리, 불면, 정서조절, 관계 갈등, 회복탄력성 향상
• 자기관리 및 직업적응능력 향상 등 집단 활동

운영장소 |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공단 소속기관 회의실 등(*신청자 별도 안내)

이용기간 | 2025.04.21. ~ 2025.12.31.

신청·문의 | 02-6909-4450(평일 09:00~18:00)



안전한 일터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만의 안전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찾습니다.



Q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전국의 모든 사업장

분야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

: 관리자와 노동자가 서로 응원하며 안전일터를 만듭니다.

일터 이야기

: 특색 있는 안전 노하우 등 해당 사업장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youtube.com/@koshamovie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blog.naver.com/koshablog

안전보건공단 페이스북
facebook.com/KOSHAnet

안전보건공단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kosha

안전보건공단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osha.angel

안전보건공단 X(구.트위터)
X.com/KOSHAnet